

경제 어려워... 설 선물 트렌드 '건강' '가족'

올 설 선물세트의 트렌드 '건강'과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건강과 가족을 먼저 챙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1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 판매전'을 진행한 결과 전년 대비 약 25% 이상 신장했다.

상품군별 판매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큰 인기를 끈 선물세트는 건강세트로,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전년 대비 약 97% 매출이 올랐다. 이어 건어물(94%), 주류(13%), 수산(2%), 정육(1%)이 뒤를 이었다.

보편적으로 명절 강세 상품인 정육과 수산 실적이 다소 주춤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로 고가인 한우, 굴비세트가 판매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강과 주류 상품군은 다양한 금액 대와 보관이 쉬운 정장

한우·굴비 판매 부진 ... 중저가·이색세트 인기

김영란법 영향 5만원 미만 한우선물세트 등장

으로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계속되는 불황에 수산과 정육보다 비교적 저렴한 중·저가의 건어물(건과, 멸치, 육포, 황태 등)과 주류의 매출 상승이 돋보였다.

반면, 청과는 -4%로 역성장했으며, 이는 신선식품세트의 물가가 상승하고 보관 기간이 짧아 설 명절을 10일정도 앞둔 상태이므로 차츰 매출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설 명절 기간이 남은 만큼 이번 주 판매량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양도원 식품팀장은 "다른 곳보다 7~10일 먼저 설 본 판매를 시작했고 지난주

부터 진행한 상품권 증정 프로모션 등이 판매 신장에 기여한 것 같다"며 "청탁금지법 발효로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다양한 상품 개발로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중저가, 이색세트도 인기다.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2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설날선물 세트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3.1% 신장중이며 5만원미만 선물세트가 19% 신장했다.

올 설 선물세트의 가장 큰 특징은 5만원 미만 한우 선물세트가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마트는 올 설에 '499 기프트 코너'를 처음 선보이며 불

고기과 양념소스로 구성된 '499 기프트' 한우 불고기 세트(한우불고기 1.4kg 등 4만9900원)도 첫 선을 보인다. 또 1인 가구 경제를 나타내는 '1코노미' 인우와 '부정청탁방지법' 등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한우 미니 세트'도 이번에 처음 선보였다.

'한우 미니 세트'는 친구들 또는 연인들끼리 가볍게 선물할 수 있는 한우 세트로 고객이 매장에서 딱 필요한 만큼 원하는 단량과 부위를 선택하면 매장에서 주문에 맞춰 제작해주는 형태다.

수산 선물세트는 참조기 가격 상승으로 올해 처음으로 참조기가 아닌 민어, 부세 조기, 긴가이석태 등을 이용한 굴비 선물세트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굴비는 중국 어선 조업 등의 요인으로 참조기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시세가 지난해 대비 30~40% 상승함에 따라 참조기 물량을 30% 가량을 줄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백화점 VIP 의존도 높다

롯데 상위 1% 고객이 전체 매출 23%

신세계 상위 3% 소비자가 40% 차지

불황 속에 서민 지갑이 꽂고 얼어붙자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넉넉한 '큰 손' 우수고객(VIP)들에 대한 유통업체의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매출 상위 1%의 백화점 VIP가 전체 매출의 약 4분의 1, 20%가 전체 매출의 무려 80%를 책임지기 때문에 이들을 잡기 위한 백화점의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18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고객 가운데 지난해 매출 순위 상위 1%에 속하는 소비자의 구매액이 전체 백화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8%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15년의 21.9%보다 0.9%포인트(P) 정도 높아진 것이다. 또 상위 20%의 매출 비중도 1년 사이 75%에서 76.1%로 1.1%p 뛰었다.

신세계의 경우 지난해 상위 3%의 VIP 고객이 백화점에서 지출한 돈이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부터 매출 상위 약 0.6%에 해당하는 최우수고객(MVG·Most Valuable Guest)의 등급을 기존 3개(프레스티지·크라운·에이스)에서 4개(레니스·프레스티지·크라운·에이스)로 늘렸다.

신세계백화점도 올해 들어 VIP 등급을 트리니티(상위 999명)·퍼스트프라이임(연 구매액 6천만 원 이상)·퍼스트(4천만 원 이상)·아너스(2천만 원 이상)·로얄(800만 원 이상) 등 기존 5개에 레드(4백만 원 이상)를 추가해 6등급으로 개편했다.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춘 '젊은' 고객을 끌어들이자는 취지다. /연합뉴스

설 명절 선물세트 신속 배송

26일까지... 인력·차량 충원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설 연휴를 약 열흘 가량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신속배송을 운영한다. 신속배송 운영기간 동안 60여명의 배송인력을 충원했고, 총 100대의 배송 차량을 운행하기로 했다.

배송 서비스는 3만원 이상 선물세트 구입 시 가능하며, 배송 접수는 23일까지 접수해야만 전국배송이 가능하다.

백화점 측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낯선 사람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배송원 실명제와 배송조건 착용, 인사 및 응대 요령 등 서비스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상품에 선물하는 고객이 배송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실시간 배송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송 지역에 따라 광주 시내로 배송하는 신속 배송과 나주, 담양, 장성, 화순 등 시외 지역 및 전국 각지에 선물을 배달하는 외주 배송으로 나눠 운영한다. 신속 배송의 경우 주문 접수 다음날 아침부터 백화점 배송 차량으로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광주 지역 선물 배송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

한우고기 특별 할인판매 광주축산농협, 26일까지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안명수)은 오는 26일까지 광주시 동구 학동 하나마트와 주월동 한우 직매장에서 '한우고기 특별할인 판매'를 한다.

안명수 조합장은 "최근 경기침체 및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한우고기 소비위축 대응하고 한우고기 우수성을 홍보하여 소비확대를 위하여 대대적인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여 믿고 먹는 우리축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에게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도 열린다. 지난 17일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19일 광주지방경찰청, 20일 광주지방경찰청, 24일~25일 동구 케이티 사옥에서 각각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미국산 수입 ... 계란값 상승세 꺾이나

37일만에 첫 하락

한 달 넘게 이어지던 계란값 상승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산 계란까지 수입하면서 수급 조절에 나선 데다 설 명절 기간에 계란 3600만개를 집중 공급하는 등 설 물가 관리에 총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던 계란 소비자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지난 13일 37일 만에 처음으로 9491원으로 하락했다가 16일 9518원으로 반등했으나 17일 다시 9490원으로 떨어졌다.

한 달 넘게 오르기만 하던 계란값이 닷새 사이 두 차례나 떨어진 것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에서의 계란 판매가도 상승세가 멈췄다.

이마트는 지난 6일 계란 30개들이 한 판 가격을 7580원으로 8.6% 인상한 뒤 열흘 넘게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고, 홈플러스도 7일 7990원으로 올린 뒤 추가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가 마지막으로 계란값을 올린 것은 21일 전인 지난달 28일이었다.

이후 롯데마트는 계란값 추가 인상 대신 미국산 계란 수입 유통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대형마트보다 구매력이 떨어져 계란 30개들이 한 판에 1만원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인 소규모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가격이 1만1000~1만3000원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주말 수입된 미국산 계란이 국내 검역 절차를 거쳐 이번 주말께 대형마트 유통망 등을 통해 시중에 풀리면 계란값 진정세가 더욱 확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즌 마케팅' 뜬다

에어컨 신제품 예약 판매

수영복 등 바캉스 용품 할인

여름에 겨울 상품을 팔고, 겨울에 여름 물건을 파는 '역(逆) 시즌 마케팅'이 뜨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여름 전례 없는 무더위로 에어컨 풍기현상과 전기요금 누진세로 인한 전기세 폭탄으로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컸던 만큼 수년 전 섰던 제품을 최신 고효율 제품으로 갈아타는 교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올 겨울 역시즌 마케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최근 올 여름 에어컨 신제품 예약 판매를 받고 있다.

이번 예약 판매에서는 삼성·LG가 참여하며, 에어컨 구매시 각 브랜드·모델별 상품권 지급이

나 무상점검 서비스 무료쿠폰, 감사품 등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임형욱 생활가전 Floor장은 "올해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약판매는 가격 이점도 있을뿐더러 성수기 시즌을 피해 구매하면 설치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방학시즌과 겨울 휴가 시즌이 맞물려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수영복을 비롯한 여름 바캉스 용품 판매 마케팅도 진행 중이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로 수영복과 래쉬가드 구매고객께는 키플링브랜드에서 백팩구매시 미니도트백을 증정하고 CK인더웨어에서는 단제리 구매시 20%할인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향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